

보호받지 못한 멸종위기야생동물 ‘산양’

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 소장 한상훈

2024년 2월 근래 보기 드문 폭설이 연이어 내렸다. 일주일 간격으로 세 차례 내린 폭설은 야생동물의 생존에 가장 힘든 겨울나기를 더욱 힘들게 하였다. 그 결과 평소에 보기 어려운 멸종위기야생동물 I급이며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국가보호종 ‘산양’이 백여 마리 이상,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로 산자락의 경사 사면(법사면)에 출현하여 먹이인 초본(풀)을 찾아다니는 진귀한 광경이 강원도 북부 접경지역 지자체마다 4월 초까지 이어졌다. 심지어 민가에 나타나 주민에게 먹이를 달라는 ‘산양’까지 있어 2개월 이상 지역에서는 ‘산양’ 봤다는 이야기로 만나는 사람마다 화제였다.

환경부 추산 국내 생존 ‘산양’ 개체수는 약 1,630마리. 그 중 지난 달까지 폐사한 산양은 990마리로 밝혀졌다. 국내 산양 생존개체수의 60.7%가 죽었다. 국내 생존 산양의 60%가 죽을때까지 정부 관계 기관(환경부와 문화재청)에서는 뭘 했느냐? 는 원망의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폭설로 산 아래로 먹이를 찾아 이동해야 하는 길목마다 아프리카돼지열(ASF) 차단 울타리가 쳐져있어 가뜰이나 탈진에 굶주린 산양이 이동이 막혀 눈 속에 죽은 산양도 울타리에서 발견되어 국가보호종 ‘산양’ 보호 관리 정책이 현장 현실과 너무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환경부에서는 아직 멧돼지 이동 차단 울타리를 철거할 수 없으며, 산양 등 야생동물이 이동 가능한 폭 4미터 구간 울타리를 철거한 시범 구간의 산양 통행 모니터링을 하여 그 결과를 보고 부분적이거나 울타리 제거를 검토하겠다고 한다.

2월 폭설이 내렸을 때부터 울타리에 의한 산양 등 야생동물의 이동이 차단되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시민단체의 요구와 지적이 있었고, 2019년 9월 아프리카돼지열 국내 발병 이후 급하게 설치한 멧돼지 이동 차단 울타리가 도로뿐만 아니라 산간 임도까지 이중 삼중으로 설치되어 오히려 산양과 사향노루 등 국가보호종의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문제 제기가 울타리 설치 초기부터 제기 되어왔다.

하여 국립생태원과 국립생물자원관 등에서 울타리가 야생동물의 이동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해 감시 카메라와 현장 조사를 2020년부터 오늘날까지 하고 있다.

대책은 아프리카돼지열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Red zone(3km구역), 중요 야생동물 서식지, 이동경로 등 생태계 우수지역과 보호지역은 White zone(안전지대), 양돈농가와 산림 중간지대를 Yellow zone(완충지대) 로 설정하여 최소한 안전지대 만이라도 아프리카돼지열 차단 울타리를 전면 또는 부분 철거를 하길 환경부와 관계 당국에 바란다.

